

장성군, 폭염·가뭄 대응 ‘팔 걷어붙였다’

평균 저수율 52% 저조…장성호 33.3% 가장 낮아
장비·인력 비상가동태세…취약시설 상황실도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강수량 부족과 폭염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2%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성호는 33.3%로 가장 낮고, 수양제 50%, 평림댐 55% 등으로 모두 60%를 하회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일제히 정비해 왔다. 저수지 준설을 비롯해 절반 이상 수

위가 낮아진 저수지부터 물을 채우는 ‘가뭄 대응 용수개발사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7월부터는 양수기와 송수호스 등 장비를 점검하고 비상가동태세를 유지 중이다.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읍·면과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군은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가뭄 단계별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하천 취수시설과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수



김한중 군수가 최근 장성호를 방문해 가뭄 대책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급수장비를 미리 배

치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읍·면은 용수부족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용수 공급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다.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용수 절약 관련 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사회복지시설 7곳을 사전 점검하고, 자원봉사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치매환자 등 건강취약주민은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쿨토시, 욕수 등 폭염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담은 ‘보건복지 함께 쿨 건강꾸러미’도 지원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는 공간인 경로당과 노인활용시설의 냉방기기 작동 여부도 점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 1647명의 안전도 재차 확인했다.
읍면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는 살수차를 운영해 체감온도를 낮추고,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건설근로자들이 폭염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다.
그밖에 더위에 취약한 시설원에·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농가 인근에는 폭염 대처 행동요령을 담은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김한중 군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군민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여수, 폭염 속 섬 박람회 성공개최 안간힘
도시숲 ‘비상 급수’…수목·잔디 피해 최소화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내 도시숲 식재지 보호를 위해 비상 급수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넘게 낮 최고기온이 33℃를 웃도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토양이 빠르게 건조해져 일부 수목과 잔디에서 시듦과 잎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급수차 2대와 산불진화차 2대를 긴급 투입하고, 스프링클러와 물주머니 1150개를 설치해 식재지 전 구역에 집중 관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간대별 순환 급수를 이어가는 등 수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중 관리 중인 도시숲은 돌산읍 우두리 주행사장 일원 6.5ha 규모로 조성 중이며, 동백나무·가시나무·은목서 등 수목 141종 1만 8636주와 버들마편초·팜파스 등 초화류 35종 10만 6817본, 잔디 2만 8550㎡가 식재돼



수목식재지 급수 작업.

있다.
시는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급수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박람회 개막 전까지 보식을 완료해 도시숲 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식재한 수목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위기”라며 “도시숲은 시민의 쉼터이자 박람회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공간인 만큼 식재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강진 사의재 전통 한옥스테이서 ‘힐링 충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역사문화 관광자원인 사의재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의재 한옥체험관’을 ‘사의재 한옥스테이’로 새롭게 단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의재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옹이 강진 유배 초기 머물며 학문과 사색의 기틀을 다진 곳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성실히 한다’는 정신이 깃든 강진의 대표 역사문화 공간이다.
이번 재개장은 사의재가 지난 역사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숙박시설과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 한옥에서 머물며 강진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했다.

사의재 한옥스테이는 전통 한옥의 멋과 정취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춰 가족, 연인, 친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 강진을 중심부에 있어 다산초당, 강진만 생태공원, 백운동정원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여행이 가능해 강진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사의재 한옥스테이를 중심으로 숙박과 연계한 역사·문화·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소비를 확대하고, 사의재 한옥스테이를 강진을 대표하는 한옥 숙박 명소로 육성해 ‘마무는 관광도시 강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사의재 한옥스테이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다산의 정



강진 사의재.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신과 강진의 역사·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관광객들이 전통 한옥의 정취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특별한 추

새단장 재오픈…강진 역사문화공간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로 안정 맞춤

락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나주 드들섬서 즐기는 ‘우리동네 워터파크’ 물놀이축제

시, 15~16일 개최…초대형 워터슬라이드·폴장 등 확대

기록적인 폭염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여름 선물을 준비했다.
초대형 물놀이 시설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갖춘 ‘우리동네 워터파크’가 나주 남평읍 도심속에서 펼쳐지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도심형 여름축제로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남평읍 드들섬(남평교 아래 물러스케이트장 일원)에서 ‘2026 드들섬 페스티벌 우리동네 워터파크’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피서 공간을 제공하고 개학을 앞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우리동네 워터파크’는 지난해보다 물놀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연령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풀과 청소년풀, 성인풀을 운영하고 초대형 에어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더욱 다채롭고 역동적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다.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흥을 돋울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도 더욱 풍성해졌다.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진행하는 ‘물총대전’과 ‘물채우기 대결’을 비롯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거품이 쏟아지는 ‘DJ 버블 워터파티’가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들섬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지식강의 시원한 물길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지난해 나주 남평읍 드들섬 일원에서 진행한 ‘2025 드들섬 페스티벌’ 현장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딸기 육묘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 현장컨설팅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영광, 고품질 딸기 생산 기반·경쟁력 강화
우량묘 생산 현장컨설팅…폭염기 맞춤형 기술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고품질 딸기 생산 기반을 다지며 지역 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딸기 정식을 앞두고 안정적인 우량묘 생산과 수량 증대를 위해 관내 딸기 육묘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육묘 스트레스와 탄저병 등 병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추진됐으며, 농가별 재배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설팅에서는 모주의 생육상태와 런너 관리, 자묘 발근 상태를 비롯해 시설 내 온·습도와 차광 관리, 관수 및 양액 공급, 배지의 pH와 EC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 탄저병, 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와 응

애, 총재벌레 등 해충 발생 여부를 예찰하고 예방 중심의 방제요령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적정 차광과 환기, 관수 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정식 전 우량묘 선별과 활착률 향상을 위한 관리기술을 농가에 전달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식 전까지 현장 순회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병해충 예방과 생육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고품질 딸기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욱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량묘 생산은 딸기의 수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며 “농가별 재배 환경에 맞는 현장 중심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딸기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화순, ‘돛하우스’ 무료 대관
청년 스테디·회의 활용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청년들의 소통과 자기계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하우스 내 ‘돛하우스’를 비롯한 청년공간을 무료로 대관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청년공간은 스테디 소규모 회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모임의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년들의 자율적인 교류와 네트워킹,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하우스 4층에 위치한 돛하우스는 총 4개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 공간으로, 청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간단한 음식물 반입도 가능해 스테디와 회의, 소모임 등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청년센터는 다목적실과 소회의실 등을 상시 운영하며 취업 준비를 위한 스테디와 자격증 학습, 프로젝트 회의 등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화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대관 가능하며, 이용 인원의 60% 이상이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관 신청은 군 청년센터 공식 홈페이지(www.hwasun.go.kr/youth)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친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